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우울성향, 자아상,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곽 윤 정<sup>1)</sup>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의 우울성향, 자아상,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음악, 미술, 국악, 무용 등의 장르에 대하여 다양한 활동과 교육방법, 교육내용을 체험하고 경험해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월 동안 매 주 2회씩 총 24회기의 교육적 처치를 실시하였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는 통제집단을 구분하여 사전, 사후 검사를 비교한 결과, 우울성향 검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후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상 검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후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우울성향, 자아상, 정서지능, 아동복지시설

---

\* 본 연구는 2009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확장한 것임.

1) 교신저자 :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 (E-mail : flow2003@naver.com)

## I. 서론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가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 속에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는 아동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는 현상 중 하나로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특성을 들 수 있는데, 과거에는 부모가 없는 아동들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였던데 반해 최근에는 부모가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아동복지연합회, 2005).

경제적 결핍으로 인해 가정이 붕괴·해체되고,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경험을 가진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의 경우 심한 정서 불안에 직면하며,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문화관광부, 2007). 또한, 대인관계 및 정서와 사회성 발달의 주요 시기인 아동기에 부모로부터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되어 다양한 능력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즉,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은 일반 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학업성취, 사회성, 정서 발달 등에서 뒤떨어져 학교나 사회에서 부적응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염미경, 1987; 주정일, 1972; 최일경, 1995).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발달영역별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아동복지시설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심리적 지지가 부족하고, 일반 아동에 비해 우울성, 사회적 미성숙, 공격성 등이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고경연, 2002; 공경희, 2002; 김미애,

2002; 전규용, 2002), 아동복지시설 아동이 일반 아동들에 비해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 등에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세순 1999). 이러한 정서적 결핍은 결국 건강한 자아상과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 학교생활이나, 또래관계에서도 문제가 드러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권세은, 이순형, 2002).

그러므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의 심리적 발달을 촉진하고 정신적 치유를 위한 교육적 처치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아동이 사회적·정서적으로 적응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취약한 형편이다. 그보다는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고,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후 필요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의 일부가 운영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이나 특별한 요구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일찍부터 시작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해 내었는데, 다양한 교육적 노력 중 문화적 요소나 예술교육프로그램이 아동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고,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lawnson & Coolbaugh, 2001).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발달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신체 발달에서는 문화적 향유 및 예술 활동의 경험이 복합적이고 풍부한 감각자극을 촉발하여 뇌의 중추신경계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인지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및 정서적 치유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Bamford, 2006).

정서 발달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시설 아동들의 흥미와 동기를 증진시키고 자신감과 인내심을 고취시키며 안정적인 정서를 갖게 하는데 기여한다고 한다(Harland et al., 2005).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사회성 발달에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화예술교육의 체험이 아동의 정서적 행복감, 자신감, 학교 및 사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과 자존감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Clawson & Coolbaugh, 2001; Jermyn, 2004).

더 나아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요구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Hughes (2004)의 연구를 살펴보면 예술교육을 받은 정신지체아동, 학교부적응 아동 등 특별한 요구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효과가 있다고 하며, Berryman (1988)은 예술교육이 비행청소년의 비행예방, 개인적, 사회적 발달, 사회 재적응 등에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Bamford(2006)의 연구에서는 예술 교육이 비행청소년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청소년들이 스스로에 대하여 반성적 투영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정체감(identity)을 형성하는 주요한 교육방법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사회적으로 취약하며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떨어져 정부나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심한 정서 불안과 심리적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유대관계에서 단절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의 체험이 긍정적인 향상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더욱이 우울함, 불안감, 낮은 자존감, 정서적 불안정 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정신적 치유는 물론 아동기 이후 사회생활에서의 적응에 필요한 건강한 자아상(self-image), 건전한 정서 상태, 대인관계 기술 등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의 향유 및 예술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어 있던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에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체험이 아동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국외의 선행연구(Clawson & Coolbaugh, 2001; Harland et al., 2005; Jermyn, 2004)를 살펴보았을 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아동복지시설 및 다양한 요구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정서적 안정성과 자존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도 정서적 안정과 우울성향, 정서지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내재되어 있던 정서적 표현의 기회를 가져보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받은 정서적인 상처를 극복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밝은 정서 상태와 기능을 갖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1.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아동복지시설의 우울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1-2.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아동복지시설의 자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1-3.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아동복지시설의 정서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지역 아동복지시설 20개원에 재원 중인 10세에서 12세의 아동 312명이다. 각 아동복지시설별로 약 15-18명 정도의 인원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중 150명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며, 나머지 162명은 통제집단이다. 연구의 대상을 10-12세 아동을 선정한 이유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나 준비도 때문이다. 10세 이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주로 생활습관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인지적, 정서적 발달의 준비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문화관광부, 2007)와 일반 학교와 달리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기초학력강화가 가장 중요하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문화예술과 정서순화 등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문화관광부, 2007)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교육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과거에 아동복지시설의 입소 아동은 부모가 없는 무의탁 아동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의 경우 312명 아동 중 40%에 해당되

는 125명이 부모가 생존해 있으나 경제적, 가정적 이유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였으며, 60%에 해당되는 187명의 경우 부모가 없는 무의탁 아동이었다.

남녀구성비 및 연령구성비를 표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징

|           | 실험                   | 통제                   | 전체                     |
|-----------|----------------------|----------------------|------------------------|
| 표본수       | 150(48)              | 162(52)              | 312                    |
| 남녀<br>구성비 | 남 89(59)<br>여 61(41) | 남 90(56)<br>여 72(44) | 남 179(57)<br>여 133(44) |
| 연령<br>구성비 | 10세 45(30)           | 10세 56(34)           | 10세 101(32)            |
|           | 11세 47(31)           | 11세 60(37)           | 11세 107(34)            |
|           | 12세 58(38)           | 12세 46(28)           | 12세 104(34)            |
| 부모<br>생존  | 유 58(38)<br>무 92(62) | 유 67(40)<br>무 95(60) | 유 125(40)<br>무 187(60) |

( )은 %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우울성향검사, 자아상(self-image)검사, 정서지능 검사이다.

#### 우울성향검사

우울성향검사의 원래 명칭은 역학연구-우울척도(Revised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Depression Scale: Revised CES-D-K)로서 아동의 우울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Weissman(1980)이 제작한 검사로 전은희(1986)이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번안하였다. 역학연구-우울척도는 현재의 우울 증상을 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기보고(Self-reporting)하도록 구성되

어 있으며 총 13개의 문항이다. 특히 이 척도는 임상적 목적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한 기분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검사도구로 알려져 있다(Robinson et al., 1991). 이 척도는 우울한 기분, 죄책감, 무가치감, 무기력감, 심리운동적 지체상태, 식욕의 상실, 수면장애 등을 주로 반영한 것으로 5점 likert 척도이며 총점을 산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우울성향 검사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성향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역학연구-우울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는 .89이다.

### 자아상 검사

Peterson과 동료들(1984)이 제작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자아상 검사(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ce: SIQYA)로서 자기보고식으로 평정하도록 구성된 6점 likert 척도의 검사이다. 자아상 검사에는 정서상태, 충동통제, 정신병리, 가족관계, 또래관계, 대처능력, 신체상, 우수한 적응력 등 8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문항 수는 29문항이다. 자아상 검사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상이 보다 나은 상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위 영역별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를 살펴보면, 정서상태는 .83, 충동통제는 .75, 정신병리는 .79, 가족관계는 .82, 또래관계는 .73, 대처능력은 .73, 그리고 신체상은 .86이다.

### 정서지능검사

정서지능검사는 최근에 등장하고 주목받고 있는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의 이론에 따라 문용린(1997)이 개발한 것으로 다섯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정서인식 능

력, 정서표현 능력, 감정이입 능력, 정서조절 능력, 정서활용 능력 등 5가지 하위 영역이다. 정서활용 능력을 평정하는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아동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와 관련된 능력을 평정하는 자기보고식의 5점 likert 척도의 검사이고 총 4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지능검사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위 영역별 내적 합치도(Cronbach  $\alpha$ )를 살펴보면, 정서인식은 .78, 정서표현은 .85, 감정이입은 .88, 정서조절은 .85, 정서활용은 .73이다.

### 3. 연구절차

#### 프로그램의 구성

본 연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한국메세나 협회가 개발하고 문화관광부에서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문화 나눔 사업 중 문화예술프로그램의 내용을 연구대상의 발달적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재구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진행 시간, 인원 등을 알아보았다. 기존에 아동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즉, 시간, 인원 등과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서이다.

24회기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한 후 프로그램의 타당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1인과 교육학 관련 박사과정생 3인의 감수를 받았다. 미술, 음악, 국악, 무용, 영화별로 각 회기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미술, 음악, 국악, 무용, 영화 등의 장르와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

표 2.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각 회기의 교육목표, 교육내용

| 장르 | 접근방법                                                   | 회기 | 교육목표                                  | 주요 교육내용                    |
|----|--------------------------------------------------------|----|---------------------------------------|----------------------------|
| 미술 | 다양한 경험<br>제공을 위한<br>프로젝트형<br>수업                        | 1  | 자기를 돌아보고 인식하기                         |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            |
|    |                                                        | 2  | 흥미유발과 동기유발하기                          | 손가락 인형                     |
|    |                                                        | 3  | 자기표현능력 향상하기                           | 동화 듣고 뒷이야기 그리기             |
|    |                                                        | 4  | 타인의 감정 느껴보기                           | 휴지그림, 친구에게 선물해요            |
|    |                                                        | 5  | 협동심을 키우고 타인의 입장에서<br>생각하기             | 색 밀가루 반죽, 협동작품 만들기         |
|    |                                                        | 6  | 자신의 미래와 비전 생각하기                       | 마블링, 애니메이션 감상하기            |
| 음악 | 악기 연주<br>및 합창을<br>중심으로 한<br>수준별 교육과정                   | 7  | 자기의 감정과 느낌 표현능력 을 키<br>우고 음악에 친숙성 키우기 | 재미있는 음악놀이                  |
|    |                                                        | 8  | 긍정적 정서 느껴보기                           | 신나는 노래 율동                  |
|    |                                                        | 9  | 정서적 순화와 예술적 감각 키워보기                   | 음악 동화 감상, 음악이 있는 시 낭송      |
|    |                                                        | 10 | 정서인식과 정서표현 능력 키우기                     | 환악기 제작 및 합주                |
|    |                                                        | 11 | 악기 연주 능력 키우기                          | 악기 체험과 연주                  |
|    |                                                        | 12 | 협동심 키우기                               | 타악기 소품 합주                  |
| 국악 | 놀이를<br>중심으로 한<br>전통음악 이해와<br>실기 중심의<br>전문교육            | 13 | 국악에 대한 흥미와 이해력 높이기                    | 사물놀이가 된 도깨비동화              |
|    |                                                        | 14 | 국악기에 대한 이해와 소리 익히기                    | 사물 악기, 두들이 체조              |
|    |                                                        | 15 | 타인의 입장 이해하기와 협동심 키<br>우기              | 손유희 놀이, 민속놀이               |
|    |                                                        | 16 | 신체적 유연성과 긍정적 정서 경험<br>하기              | 태극기 춤, 사물 악기로 장단치기         |
|    |                                                        | 17 | 타인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모니의<br>중요성 인식하기         | 소고춤, 한산춤                   |
|    |                                                        | 18 | 전통음악과 춤에 대한 애정 갖기                     | 내가 만든 컴퓨터 음악               |
| 무용 | 신체의 유연성을<br>강조한 창작중심<br>무용교육을 통해<br>정서적 치유 및<br>안정감 확보 | 19 |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자신에 대한<br>인식능력 키우기        | 내 몸 알기                     |
|    |                                                        | 20 | 춤을 추고 난 후 성취감과 만족감<br>느끼기             | 아름다운 몸 만들기, 균형잡힌 몸 만<br>들기 |
|    |                                                        | 21 | 협동심을 키우고 열린 마음 갖기                     | 역할찾기, 공동체 놀이               |
|    |                                                        | 22 | 자기 표현 능력 키우기                          | 자기표현하기, 자아발견               |
|    |                                                        | 23 | 창작 능력 키우기                             | 신체 관찰하고 움직이기               |
|    |                                                        | 24 | 다양한 무용에 대하여 이해하기                      | 발레 등 다양한 무용 배우기            |

록 구성되어 있다. 그와 동시에 문화예술의 체험과 숙달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과 정서표현능력, 자기인식, 타인에 대한 이해와 협동 등을 향상할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각 장르별로 6회기씩 총 24회기로 구성하였다.

#### 프로그램의 실시

프로그램의 실시하기 전 각 장르내용을 가르치는 전문가인 강사진을 모집하여 장르별 강사들에게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에 대한 교사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사교육의 내용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 및 이론, 프로그램의 운영방법, 프로그램의 내용 및 적용,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특성 등에 대한 것이었으며, 아동복지시설에서 수업을 실시하기전에 시연을 해 보는 과정을 거쳤다.

교사교육 후 매주 3회씩 2주 동안 실시하였으며, 한 회기당 교사 교육시간은 90분 정도였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에 속하는 아동복지시설별 아동 수는 15-18명 정도이고, 교사는 각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할 때마다 한꺼번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 미술, 국악, 무용 장르에 관하여 약 3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한 회기 당 50분씩 매주 2회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운영과 실시는 각 장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강사 4인이 직접 20개의 아동복지시설별로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 사전·사후 검사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전과 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우울성향 검사, 자아상

검사, 정서지능 검사를 사용하여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학생들에게 직접 배부하여 지면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고 회수하였다.

#### 자료 처리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즉,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통제한 후 세 가지의 사후 검사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 III. 결과 및 해석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검사 점수에 대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점수는 표 3과 같다.

우울성에 대해서는 통제집단이 실험집단보다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이 높았고, 자아상과 정서지능에 대해서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이 높았다.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에 대해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곧, 우울성에 대해서는 통제집단이 실험집단보다 높았으나, 자아상과 정서지능에 대해서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았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사전검사 점수를

표 3. 집단별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 점수

| 변인   | 집단 | 표본수 | 사전         | 사후         | 수정된 사후평균<br>(표준오차) |
|------|----|-----|------------|------------|--------------------|
|      |    |     | 평균         | 평균         |                    |
| 우울성  | 실험 | 150 | 2.00 (.55) | 2.02 (.51) | 2.03 (.07)         |
|      | 통제 | 162 | 2.02 (.51) | 2.24 (.54) | 2.24 (.07)         |
| 자아상  | 실험 | 150 | 3.43 (.64) | 3.76 (.63) | 3.76 (.08)         |
|      | 통제 | 162 | 3.41 (.59) | 3.44 (.68) | 3.44 (.08)         |
| 정서지능 | 실험 | 150 | 2.07 (.51) | 2.12 (.56) | 2.13 (.08)         |
|      | 통제 | 162 | 2.05 (.47) | 2.10 (.65) | 2.10 (.08)         |

( )안은 표준편차

표 4. 공변량 분석 결과

| 변인   | 변량원 | 자유도 | 제곱합   | 평균제곱 | F      |
|------|-----|-----|-------|------|--------|
| 우울성  | 공변인 | 1   | .23   | .23  | .85    |
|      | 집단  | 1   | 1.39  | 1.39 | 5.02*  |
|      | 오차  | 117 | 32.33 | .28  |        |
| 자아상  | 공변인 | 1   | 1.30  | 1.30 | 3.08   |
|      | 집단  | 1   | 3.00  | 3.00 | 7.13** |
|      | 오차  | 117 | 49.26 | .42  |        |
| 정서지능 | 공변인 | 1   | .01   | .01  | .04    |
|      | 집단  | 1   | .02   | .02  | .05    |
|      | 오차  | 117 | 43.09 | .37  |        |

\* $p < .05$ . \*\* $p < .01$ .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검사 점수에 대해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변량분석의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우울성에 대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F=5.02$ ,  $p < .05$ ), 자아상에 대해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7.13$ ,

$p < .01$ ). 그러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정서지능 점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05$ ,  $p > .05$ ).

다시 말해서, 통제집단은 실험집단보다 우울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자아상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정서지능 점수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한 아동복지시설의 실험집단 아동이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복지시설의 통제집단보다 자아상의 사후 검사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성향 점수의 경우 실험집단의 아동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나, 통제집단의 우울성향 점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두 집단의 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우울성향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연구문제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우울성향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반면에 통제집단의 경우 우울성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집단의 차이가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이나 다양한 요구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우울감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Clawnson & Coolbaugh, 2001; Jermyn, 2004). 본 연구대상과 같이 아동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장애에 음악치료,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사물놀이가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게 하고 문제행동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국내 연구(고은영, 2003; 김영철 등, 2007; 김창무, 2002)의 결과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술, 음악 등의 예술적

요소가 사람의 마음을 질서 있게 배열하여 기분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자신의 현재 정서를 인식하고 통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임은희(1999)의 주장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한 아동복지시설 아동은 우울감이 더 이상이 증가하지 않지만, 문화예술적 경험을 하지 못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은 우울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예술적 요소가 우울감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의 경우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분노, 우울, 불안 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이삼미, 1999),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의 공통적인 심리, 정서적인 특징은 유기로 인한 분노와 불안, 대상상실로 인한 슬픔, 위기감 등이 정상적인 상태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김기환, 1999)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만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들에게 미술, 음악 등의 문화예술적 요소가 상처받은 정서에 도움을 주며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둘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예술프로그램이 자아정체감과 건전한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한다는 Bamford(2006)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Bowlby(1980)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경우 획일적 규칙, 시설 직원의 알력, 자유

롭고 변화가 허용된 일반 사회생활 유형과 상이한 생활의 강요 등이 아동복지시설 아동 각자의 개성을 잃게 하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이 문화예술적 경험과 예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보고 스스로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성찰해 봄으로써 보다 원만한 자아개념과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Clawnson & Coolbaugh, 2001; Jermyn, 2004)와 본 연구 결과는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별한 요구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예술교육프로그램의 경험은 정서 및 사회성, 대인관계 기술 영역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Hughes, 2004)와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은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활용 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서 부모와 교사의 역할을 하는 보육사와 아동의 비율이 높은 관계로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기회가 극히 차단되기 때문이라고 한다(박미경, 2006). 반면에 일반 가정 아동의 경우 부모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 표현의 기회를 갖고 정서지식을 갖게 되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 아동에 비해 정서지능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박미경, 2006).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이 시설 운영자와 관계가 좋을수록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난다는 오세순(1999)의 연구 결과 역시 정서지능과 타인 특히 부모나 부모 역할을 하는 대상과의 상호작용은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시간과 강사 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시설별로 일주일에 두 번씩 강사가 방문하여 15-18명 정도의 집단 프로그램으로서 운영하였다. 그러다보니 강사와 아동 간의 개인적인 관계 형성이나 상호작용의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정서지능은 유의미한 성인이나 타인으로 부터 사회화하고 내면화하여 학습한다는 연구(곽윤정, 2004)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본 연구의 교육프로그램은 정서지능을 향상시키기에 제한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처치 기간도 정서지능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울 척도나 자아상 척도는 현재의 감정이나 정서상태의 변화 등을 다루고 있는 반면 정서지능 검사의 경우 인지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정서를 다루고 인지적으로 통제하여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 인지적 능력보다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Goleman, 1995).

단기간의 프로그램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정서상태가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가능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음악이나 국악 등의 활동은 즐거운 음악에 대한 체험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버리고 긍정적인 정서를 체험하는 활동 등을 통해 학습자가 정서를 정화해보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감정이나 기분이 긍정적인 상태로 변

화하여 우울 척도와 자아상 검사에서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반면에, 정서지능과 같은 복잡한 인지능력의 발달을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학습적 노력이 필요하다(Goleman, 1995)고 한다. 그러므로 정서지능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프로그램 처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의 경우는 일반 가정의 아동에 비해서 인지적인 기능 및 능력을 갖추는데 더 많은 교육적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들 대부분은 오랜 시간동안 양육이나 교육으로부터 방임되어 생활하다가 입소하게 되므로 아동기에 필요한 생활습관이나 일상행동의 훈련에서조차 무력감을 느끼고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물을 마신 후 물병을 원 위치에 두는 단순한 습관을 습득하는데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보고(문화관광부, 2007)를 비추어 보았을 때 복잡하고 복합적인 정서지능의 능력을 습득하는 데에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즉, 정서를 인지적으로 조작하고 조절하며 통제하는 복합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처치 기간인 3개월만으로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문화예술의 경험이나 교육적 기회가 정서, 사회성보다 인지능력을 향상하는데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연구를 제시하면, Hreland와 동료들(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들의 연구에서 예술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정서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이 먼저 증가하게 되고, 프로그램의 처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서조절이나

감정통제 등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결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실험집단 아동들의 우울감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며,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효율적인 학습이나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아동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증연구로서 심리검사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어떤 요소와 장르가 보다 정서적인 안정과 건전한 자아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교육적 처치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경험연구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제한점이기는 하지만, 아동들의 변화가 교육적 노력의 결과인지, 혹은 교육프로그램 이외의 측면이나 강사 개인의 역량인지에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실증연구와 아울러 아동의 변화에 대한 질적인 연구가 병행된다면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의 소외계층의 아동들을 위하여 보다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설계

와 효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단기적으로 실시하고 일시적인 프로그램의 효과만을 평가하거나 한시적인 미봉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정서를 다루고 대처하며 인지적으로 유연하게 다루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며, 보다 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경연 (2002).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은영 (2003). 사물놀이가 청소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경희 (2002). 시설아동의 사회부적응 행동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수도권 학교와 시설청소년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윤정 (2004). 정서지능 교육프로그램 모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윤정 (2007). 재미교포 아동을 위한 정서지능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연구. 아동학회지, 28(2), 235-250.
- 권세은, 이순형 (2002).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기술, 정서조망 능력의 비교. 아동학회지, 23(2), 107-120.
- 김기환 (1997). 21세기 아동복지를 위한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사회복지 봄호, 39-59.
- 김미애 (2002). 양육시설 아동의 정서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태 (1978). 발달심리학. 서울: 법문사.
- 김상철, 김영숙, 이현림 (2007).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인간발달연구, 14(3), 87-107.
- 김창무 (1999). 음악치료에 관한 연구: 정서, 행동장애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 (1997). EQ 검사. 서울: 대교출판사
- 문화관광부 (2007). 문화예술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 문화관광부.
- 박미경 (2006).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정서지능, 사회적 능력과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 한국아동복지연합회 (2005). 아동복지시설 반전 방안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 염미영 (1987). 시설 청소년의 특성불안 및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세순 (1999).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정서지능 비교.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미숙 (1980). 보호시설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성격특성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삼미 (1999). 시설규모에 따른 시설아동의 자립성과 사회적응력 비교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희 (1999). 음악치료학 입문. 서울: 시유시.
- 전규용 (2002). 시설아동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사

- 회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은희 (1986). 소년과 정상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 비교연구, *이화간호학회지*, 19, 9-28.
- 주정일 (1972). 학령전교육의 필요성진단. *대한가정학회지*, 10(2), 700-712.
- 최일경 (1995). 시설아동의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ne Bamford (2006). *The Wow Factor*. NY: Waxmann Munster.
- Berryman, M. S. (1988). Dance movement: effects on elderly self-concept.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9, 42-46.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III*. N. Y.: Basic Books.
- Clawson, H. J. & Coolbaugh, K. (2001). The Youth ARTS Development Project, *OJJDP Bulletin*, U.S. Department of Justice.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Y: Bantam Books.
- Harland, J., Lord, P., Scott, A., Kinder, K., Lamont, E., & Ashworth, M. (2005). *The art-education interface: A mutual learning triangle*. Slough; NFER.
- Hughes, J. (2004). Doing the Arts Justice, *The unit for the arts and offenders center for Applied Theatre Research*.
- Jermyn, H. (2004). The art of inclusion, *July Arts Council England*, North West.
- 1 차원고접수 : 2010. 01. 10.  
수정원고접수 : 2010. 03. 02.  
최종게재결정 : 2010. 03. 08.

## The Effect of the Culture-Art Education Program on Depression, Self-Image, and Emotional Intelligence for Children in Welfare Institutions

Kwak, Yun Jung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Culture-Art Education Program on depression, self-image, and emotional intelligence for children in welfare institutions. The Culture-Art Education Program consisted of various activities and instructional methods in Music, Art,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Dance. The treatment was implemented through 24 courses carried out over 3 months. When the depression, self-image,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were compared at the end of the applicatio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scores than the control group in terms of the depression scores. On the other hand,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the control group in terms of the self-image scores.

*Key words : Culture-Art Education Program, depression, self-image, emotional intelligence, welfare institution*